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경제 2분기에 강한 성장...2.8%
- Bloomberg: 물가 비용 위기로 식품, 자동차, 사치품 판매 타격
- Reuters: 미 주간 실업청구 수당, 예상보다 하락

[미국 금융]

- WSJ: 강한 GDP 성장에 국채 시장 비관론 개선

[미 대선]

- JP 모건: 올해 미 대선 관전 포인트: 대통령 선거 리셋
- Bloomberg: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지만 월가는 이를 의심한다

[자동차 보험]

- WSJ: 무보험 운전자 늘어나 운전자들의 보험 비용 증가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중국, 2020년 이래 최대 규모로 1년 정책 금리 인하
- Bloomberg: G7, 무역 저해할 수 있는 '일방적 조치들'에 경고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사우스웨스트 항공, 지정 좌석제 도입
- Bloomberg: 아메리칸 항공, 전략적 실수 탓에 이익 전망 하향 조정
- CNBC: 기술 기업들, AI 칩 경쟁으로 인한 과잉투자 우려
- CNBC: GE 헬스케어, AWS와 손잡고 의료용 인공지능 개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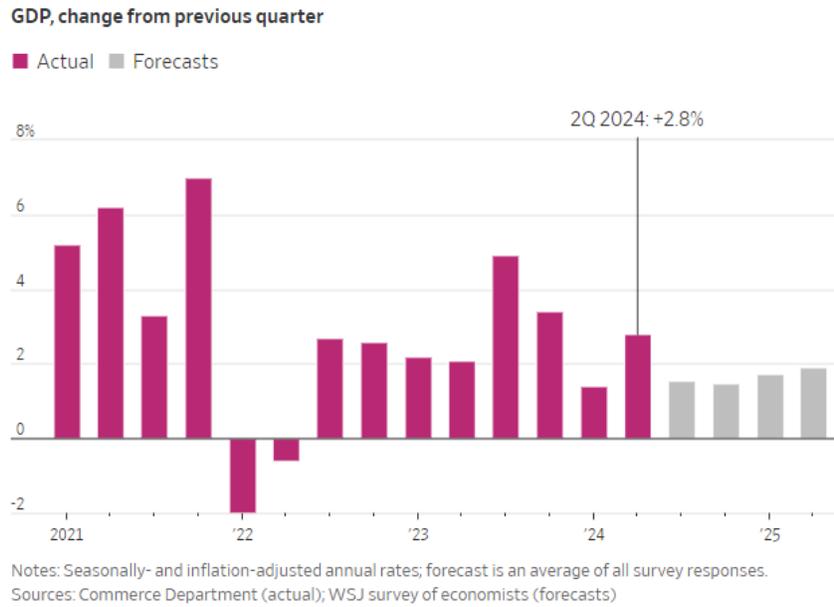
[미국 경제]

WSJ: U.S. Economy Grew a Robust 2.8% in Second Quarter

미 경제 2분기에 강한 성장...2.8%

- 미 GDP가 1분기보다 2분기에 크게 성장했다. 소비 지출 증가와 기업들의 장비 투자 및 재고 증가에다 인플레이가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2분기 GDP는 인플레이와 시즌 조정 수치로 연율 2.8%를 기록했다고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 1분기 1.4%보다 큰 성장률이며 전문가들의 2분기 예상치 2.1%를 상회하는 수치다.
- 미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가계 지출은 1분기에 1.5% 증가했으나 2분기에 2.3% 늘었다. 서비스 지출은 완만했으나 제품 지출이 늘어난 것.

- 한마디로 미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 이와 관련 다음 주 연준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가 둔화될 경우 오는 9월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Cost-of-Living Crisis Takes Toll on Sales of Food, Cars, Luxury

물가 비용 위기로 식품, 자동차, 사치품 판매 타격

-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여러 분야의 판매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품 생산업체, 항공사, 자동차 회사 등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 가장 큰 식품사인 네슬레 SA는 오늘 목요일 올해 매출 전망을 줄였고 Unilever Plc는 예상 실적을 맞추지 못했다. 지프 등을 제조하는 Stellantis NV는 수익 손실을 보고했다. 미 가전제품사인 월풀도 예상 실적을 낮추었다.
- 관련 Savings.com의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 소비자의 80%가 식품 지출을 줄이고 있다.
- 소비자들이 가격에 부담을 느껴 '가치를 찾는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업체들이 계속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Bloomberg 기사

Reuters: US weekly jobless claims fall more than expected 미 주간 실업청구 수당, 예상 보다 하락

- 지난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줄었다. 허리케인과 일시적인 자동차 생산 시설의 폐쇄가 회복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 7월 20일 끝난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건이 줄어든 23만5천건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노동국의 오늘 목표일 발표했다.
- 그 전주에는 올해 실업수당 범위인 19만4천건~24만5천에서 상단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허리케인 베릴에 따른 텍사스주의 청구 건수 증가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시적인 자동차 생산 시설 폐쇄도 청구 건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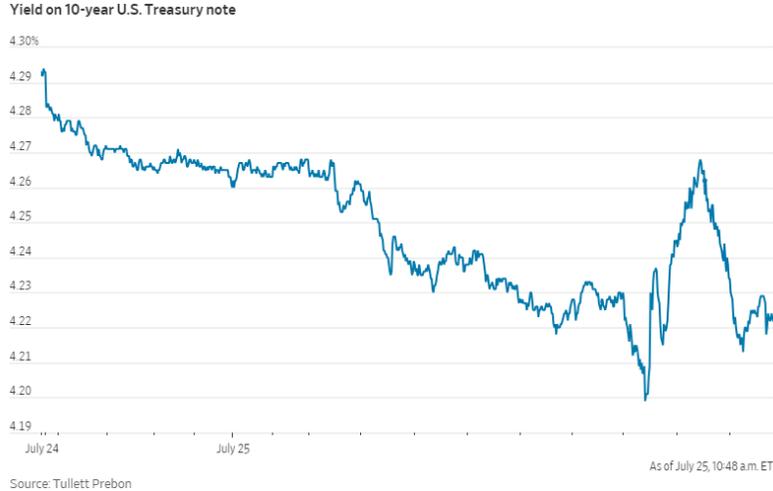
Reuters 기사

[미국 금융]

WSJ: Strong GDP Tempers Bond-Market Pessimism 강한 GDP 성장에 국채 시장 비관론 개선

- 오늘 목요일 발표된 예상 외의 미 GDP 강세로 인해 전장의 국채 금리 하락은 만회했다.
- Tradeweb에 따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GDP 발표 전에 4.198%이었으나 발표 후에 4.215%에서 거래 중이다.
- 국채 투자자들은 그동안 미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베팅을 늘렸다. 특히 뉴욕 연준 총재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9월까지

지 기다리지 말고 다음 주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베팅이 힘을 얻었다.



WSJ 기사

[미 대선]

JP 모건: 2024 US Election Watch: Shifting narrative once again: A Presidential race reset

올해 미 대선 관전 포인트: 대통령 선거 리셋

- 카말라 해리스는 빠르게 대의원 50% 이상과 핵심 민주당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 실질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상 큰 문제가 없는 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해리스의 국내외 정책은 바이든과 같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선되면 커뮤니티 이슈와 사회적 지출에 더 집중 것으로 보인다.
- 해리스는 부통령 지명과 관련해 주요 경합주 출신 주요 후보들 중에 온건한 백인 주지사나 상원의원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 해리스의 지명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의 지지가 커지면서 민주당이 하원을 다시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선거 모금에서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는 기금 모금에서 20억 달러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선거 결과는 투표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미국에 2억4천4백만 명의 유권자가 있지만 일부 주에서 수천 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현재 경합주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아리조나, 네바다주

- 여성은 핵심적인 투표 그룹으로, 역사적으로 등록률과 투표율 면에서 남성보다 높으며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투표 법안으로 인해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 젊은 층도 주요한 투표 집단이지만 다른 계층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
-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주요한 이슈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처방약, 대학 학자금 탕감 등을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둘 수 있다. 올해 7월 현재 바이든은 1백40개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JP 모건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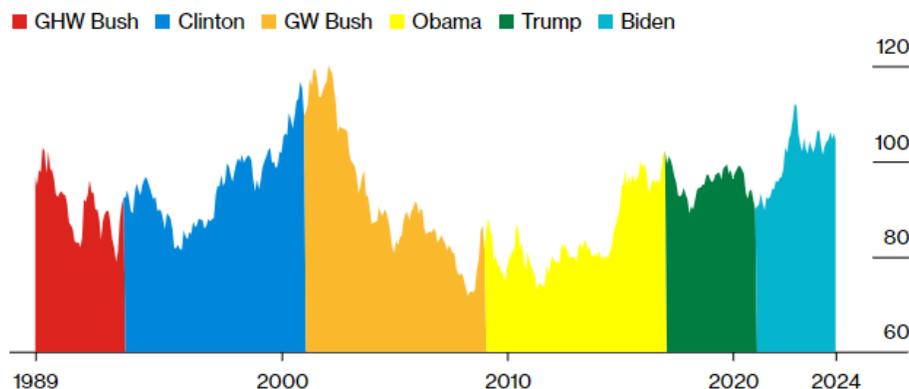
Bloomberg: Trump Wants a Weaker Dollar But Wall Street Doubts He'll Get One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지만 월가는 이를 의심한다

- 도널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희망하고 있지만 월가에 따르면 그는 실제로는 달러 강세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미국의 무역국들에 대한 관세 인상에도 세금 인하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결국 달러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 그는 공화당을 자신의 포퓰러 이미지로 완전히 바꾸고 강 달러 회의론자인 오하이오 상원의원인 JP 밴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했다. 트럼프는 달러가 미 무역 적자를 키우고 산업을 황폐화 시킨다며 '고평가'된 달러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 모건 스탠리와 도이치 뱅크 등은 트럼프의 정책이 달러 강세를 야기시킬 것이고 밝혔다. 트럼프가 제안한 감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산이 느슨해져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 강화 정책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며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무역 상대국의 통화에 대한 수요도 약화시킬 것이다.

US Presidents and the Greenback

Index that measures dollar's value against other key currencies has recently been trading at highest levels since Bush presidency in early 200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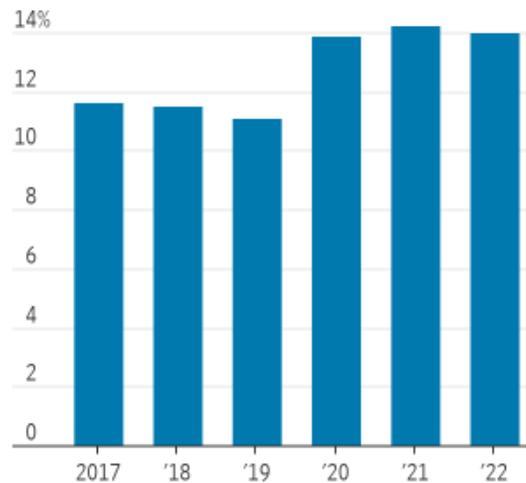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자동차 보험]

WSJ: An Increase in Uninsured Drivers Is Pushing Up Costs for Everyone Else**무보험 운전자 늘어나 운전자들의 보험 비용 증가**

- 더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 없이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 외의 운전자들 보험료가 더 커지고 있다. 이같은 보험 없는 무보험자 숫자는 팬데믹 시작 이후 증가하고 있다.
- Insurance Research Council에 따르면 무보험 운전자 숫자는 지난 2019년에 11%였으나 2022년에 14%로 증가했다.
- 특히 워싱턴 DC, 뉴멕시코, 미시시피 지역 무보험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무보험자가 늘어나다 보니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렸다. 풀커버 보험료의 평균은 올해 2천2백78달러로 작년의 12%가 상승했다.

Estimated share of uninsured motorists

Note: The IRC measures the number of uninsured motorists based on insurance claims provided by participating companies.

Source: Insurance Research Council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 Unexpectedly Cuts One-Year Policy Rate by Most Sinc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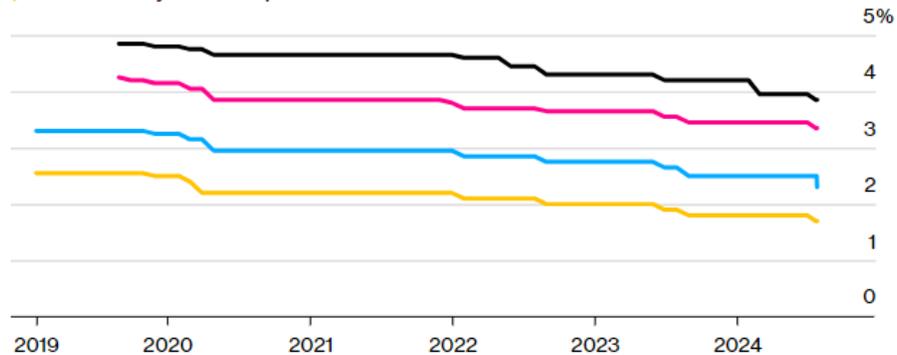
중국, 2020년 이래 최대 규모로 1년 정책 금리 인하

- 중국 인민은행이 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1년 만기 단기 정책 대출 금리를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하했다.
- 목요일 성명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edium-term Lending Facility, MLF) 금리를 2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여 2.3%로 낮췄다. 이는 거의 1년 만에 첫 인하였다. 이번 인하는 인민은행이 월요일 7일물 역 환매조건부채권(Reserve Repo, RP) 금리를 1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한 데 이은 조치이다.
- ING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린 송(Lynn Song)은 “통화정책 완화를 위해 모든 기준금리를 조율하고 있다”며 “7일물 역RP로 시작된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주요 정책 금리의 역할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hina Cuts Rates Again

Short and longer-term rates cut this week in surprise moves to boost economy

/ Loan prime rate 5-year loans / LPR 1-year loans / Rate on 1-year policy loans (MLF)
/ Rate on 7-day reverse repurchase notes



Source: People's Bank of China

Bloomberg 기사

Bloomberg: G-7 Warns Against Unilateral Actions That Might Undermine Trade

G7, 무역 저해할 수 있는 ‘일방적 조치들’에 경고

-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세계 무역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방적 조치들”에 대해 경고했다. 이탈리아 재무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G-7은 “특히 전략적 중요 분야를 포함한 중국의 막대한 산업 역량을 고려할 때” 국제 무역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는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한편 G-7 회원국들은 또한 필요한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충분하고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 재무장관들은 수요일 G20 회의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세계 무역의 분열, 국제 조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Southwest Air Moves to Assigned Seats in Major Policy Shift 사우스웨스트 항공, 지정 좌석제 도입

-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Southwest Airlines Co.)이 반세기 넘게 유지해 온 선착순 좌석 배정 정책을 폐지하고 지정 좌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 이 항공사는 목요일 새로운 비즈니스 클래스 옵션 및 심야 비행 계획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매출 증가와 매력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올해 초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좌석 배정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Investment Management)와 같은 행동주의 투자자들로부터 실적 부진한 운영을 개편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merican Air Slashes Profit Outlook After Strategic Misstep 아메리칸 항공, 전략적 실수 탓에 이익 전망 하향 조정

-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Group Inc.)은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전의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 항공사는 목요일 성명에서 조정된 연간 순이익이 주당 70센트에서 1.3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전망치인 최대 3.25달러보다 낮은 수치이다. 3분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주당 49센트의 이익에 크게 못 미치는 손익분기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번 하향 조정은 국내 수요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와 수익성 높은 기업 고객을 소외시킨 잘못된 판매 전략의 여파를 반영한다. 이는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진 하향 조정이다.

Bloomberg 기사

CNBC: Tech's splurge on AI chips has companies in 'arms race' that's forcing more spending

기술 기업들, AI 칩 경쟁으로 인한 과잉투자 우려

-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며,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과 훈련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투자 과열을 일으키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저커버그는 블룸버그의 에밀리 창과 함께한 팟캐스트에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필요 이상으로 과잉 투자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나중에 돌아쳐보면 수십억 달러의 불필요한 지출로 여겨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이러한 우려는 알파벳의 CEO 순다르 피차이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우려하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로부터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모두 인공지능 투자를 핵심 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저커버그는 기업들이 큰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인공지능 투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뒤쳐질 경우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가장 중요한 기술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NBC 기사

CNBC: GE HealthCare taps Amazon Web Services to build generative AI for medical use

GE 헬스케어, AWS와 손잡고 의료용 인공지능 개발

- GE 헬스케어는 목요일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협력하여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과 도구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 의료 산업은 전 세계 데이터의 약 3분의 1을 생성하지만, 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환자의 의료 기록, 이미지, 스캔, 보험 기록 등이 다양한 파일 형식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와 연구원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 GE헬스케어는 AWS와 협력하여 의사들이 검진, 진단, 의사 결정 지원 및 일정 관리와 같은 의료 업무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 GE 헬스케어의 타하 카스-후트 박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도구는 병원과 의사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美증시, 빅테크 실적우려에 2022년 후 최대 폭락...나스닥

3.6%↓

S&P 2.31%↓·다우 1.3%↓...과매수 장세·계절적 요인 등으로 '퍼펙트스톡'
투자자들, 테슬라·구글 실적 뜯어보고 'AI 붐 지속' 회의론↑

테슬라, 구글 등 일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의 2분기 실적발표 결과가 투자자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8.61포인트(2.31%) 떨어진 5,427.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54.94포인트(3.64%) 급락한 17,342.41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04.22포인트(-1.25%) 하락한 39,853.87에 마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